

1순위 최형우, 나이·계약기간 고민
 '해의 진출 희망' 양현중, 유턴 변수
 부족한 자원·관심 분야는 '내야'

KIA 스토브리그 'FA 딜레마'

2018년 임창용 방출·지난해 안치홍 이적 과정 '시끌'

올 내야 트레이드 효과 미미... 팀 방향 설정·내부 결속 '과제'

딜레마에 빠진 KIA 타이거즈, 이번 스토브리그는 평온할까?

코로나19로 도전의 시즌을 보낸 KBO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경기장은 고요해졌지만 각 구단은 내년 시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내부 연봉 협상과 외부 전력 보강 등을 위한 작업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SK 김성현이 FA 1호 계약 선수가 되면서 스토브리그에 불이 붙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KIA의 스토브리그에도 눈길이 간다.

2017년 우승 분위기를 잊지 못한 KIA는 2018년 겨울 임창용 방출 문제로 흥역을 지냈다. 시즌 중반 불거진 갈등 봉합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고, 시즌 종료 후에는 조계현 단장이 일방적으로 방출 통보를 하면서 KIA는 내부 소통·전략 부재를 노출하며 최악의 스토브리그를 보냈다. 구단은 영입부터 방출까지 아마추어 같은 대처로 일관하면서 내부 갈등

만 증폭시켰다.

지난해에는 안치홍의 이탈로 시끄러웠다.

안치홍-김선빈 '집토끼'를 언급하며 양의지 영입전에서 받을 뻔했던 KIA지만 결과는 말과 전혀 달랐다.

팀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로 뛰었던 두 선수는 외부 공인과 다른 대접을 받았다. 특히 안치홍은 시즌에도 찬밥 신세였다.

2018시즌 팀에 유일하게 골든글러브를 안겨준 안치홍은 지난해에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 경기 도중 발목, 손가락 부상을 당해 부족한 성적을 냈고, 시즌 중반 주장 역할도 맡았지만, 내부에서는 안치홍 몸값 낮추기에 혈안이 됐다.

시즌 도중 '2루 불가론'을 공개적으로 꺼내든 구단은 '알아보니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더라'와 같은 말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시즌이 끝난 뒤 외부에는 "집토끼 무조건 잡겠다"고 경쟁 차단에 나섰다. 시즌이 끝난 뒤 외부에는 "집토끼 무조건 잡겠다"고 경쟁 차단에 나섰다. 시즌이 끝난 뒤 외부에는 "집토끼 무조건 잡겠다"고 경쟁 차단에 나섰다.

목욕히 협상을 기다렸던 안치홍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시세에 맞지 않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이기적인 선수'가 됐다.

당연히 라커룸에 자신의 집을 두었던 안치홍은 결국 돈이 아닌 가치를 인정해준 롯데로 쫓기듯 이적했다. 동료들은 말과 다른 협상 과정과 이적 상황을 지켜보면서 동요했다.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주장이 홀대받는 모습을 지켜본 한 선수는 안치홍의 이적 소식에 "오늘 꿈을 잃었다. 내 꿈이 프랜차이즈 스타였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KIA는 부랴부랴 김선빈 잡기에는 성공했지만, 신뢰에 금이 갔다.

안치홍 사례가 있었지만 올 시즌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트레이드 과정에서 떠난 이와 안에서 지켜보던 선수들 모두 말로 상처를 받았다.

트레이드를 놓고 시사각각 달라지는 구단의 말도 신뢰를 잃었다. 시즌 초반부터 트레이드 카드를 노출하면서 상대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기대 이상으로 전력을 플러스하기도 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KIA는 FA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일단 최형우와 양현중이라는 '집토끼'를 놓고도 고민이다.

KIA는 안치홍-김선빈이 군에서 돌아오는 2017년을 우승 적기로 보고 최형우를 영입, 성공사세를 장식했다. 4년 동안 꾸준한 성적을 낸 최형우는 '타격왕'까지 차지하며 무조건 잡아야 하는 선수가 됐다. 필수 선수지만 적지 않은 나이, 계약 규모가 고민이다.

양현중도 고민이다. KIA는 4년 전 양현중의 해외 진출 선언에 최형우로 시선을 돌려 대형 FA 계약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양현중이 뒤늦게 국내로 선회하면서 단년 계약으로 급한 불을 껐다.

두 번째 FA에서도 양현중은 해외 진출을 말한다. 양현중의 의지가 강하지만 해외 분위기가 기대 이상으로 뜨겁지 않다. 코로나19라는 변수까지 있어서 양현중의 거취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양현중을 빼놓고 FA 시장을 계산하기도, 염두에 두고 판을 짜기도 어려운 딜레마다.

코로나19 탓에 총알이 넉넉한 것도 아니다. KIA가 관심을 두고 있는 FA 자원이 내야라는 점도 딜레마다.

KIA는 올 시즌 세 차례 트레이드를 통해 모두 내야수를 영입했다. 외야수 박준태를 내주고 장영석을 데려왔고, 홍건희와 류지혁을 바꿨다. 그리고 문경찬-박정수 두 투수를 내주고 장현식과 김태진을 영입했다.

KIA의 야수진 세대교체 특히 허약한 내야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야 트레이드에 집중해놓고 다시 또 내야 FA에 눈독 들이는 상황은 KIA 운영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다.

육성 기조를 외치며 파격적인 이병호 총괄코치 체제까지 도입한 만큼 내야 강화를 위해 큰돈을 거둘 수 있는 명분도 약하다.

내년 당장 투자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내야 영입에 집중했지만 여전히 확실한 계산이 서지 않고, 투수·외야 선수층도 얇다. 결국 내야 교통정리를 위해 내야수를 주고 투수·외야수를 영입하는 트레이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방향을 잃은, 말만 요란했던 운영에 KIA는 스스로 딜레마에 빠졌다.

팀 전체를 위한 방향 설정과 내부 결속이 중요한 숙제가 된 KIA의 스토브리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주인 기다리는 황금장갑 '타율왕 최형우' 기대 만발

KBO, KIA 브룩스·나지완 등 후보 87명 발표... 11일 시상식



최형우

브룩스

나지완

'황금장갑'을 다룰 후보 87명이 확정됐다.

KBO가 2일 '2020 신한은행 SOL KBO 골든글러브'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10개의 골든글러브를 놓고 총 87명이 각축을 벌인다.

골든글러브 후보 선정 기준은 지난해와 같다.

투수의 경우 규정이닝을 충족하거나 10승 이상, 30세이브, 30홀드 이상 중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된다. 포수와 야수는 해당 포지션에서 720이닝(팀 경기 수 5이닝) 이상 수비를 소화한 모든 선수가 후보가 된다.

지명타자는 규정타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97타석 이상을 지명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경우 명단에 포함된다.

또 정규시즌 개인 부문별 1위 선수도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기준이 충족된 포지션의 후보로 자동 등록된다. '타이틀 홀더'의 경우 특정 포지션에서 수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최다 수비수비율을 소화한 포지션의 후보가 된다.

KIA에서 자격 요건을 채운 선수는 가능·브룩스·양현중(이상 투수), 최형우(지명타자), 유민상(1루수), 박찬호(유격수), 나지완·최원준·터커(이상 외야수) 등 9명이다.

투수 부문에서는 가능·브룩스·양현중과 함께 라이트·루친스키·원종현(이상 NC), 알칸타라·유희관·최원준(이상 두산), 데스파이네·배재성·소형준·주권·쿠에바스(이상 KT), 윌슨·임찬규·켈리(이상 LG), 오키자·조상우(이상 키움), 박세웅·스트레일리(이상 롯데), 뷰캐넌·최재홍(이상 삼성), 문승원·박종훈·핀토(이상 SK), 서폴드(한화) 등 총 27명이 후보가 됐다.

포수, 지명타자 부문에서는 7명이 경쟁한다. NC 양의지, 두산 박세혁, KT 장성우, LG 유강남, 롯데 김준태, 삼성 강민호, 한화 최재훈이 포수 부문 후보다.

지명타자 부문에서는 '타격왕' 최형우와 함께 NC 나성범, 두산 페르난데스, KT 유한준, 키움 서건창, 롯데 이대호, 삼성 김동엽이 이름을 올렸

다.

1루수 후보로는 유민상과 함께 NC 강진성, 두산 오재일, KT 강백호, LG 라모스, SK 로맥 등 6명이 등록됐다.

2루 골든글러브를 놓고는 NC 박민우, 두산 최주환, KT 박경수, LG 정주현, 롯데 안치홍, 삼성 김상수가 대결한다.

3루에서는 NC 박석민, 두산 허경민, KT 황재균, 롯데 한동희, SK 최정 등 5명이 경쟁한다. 유격수 후보는 박찬호와 NC 노진혁, 두산 김재호, KT 심우준, LG 오지환, 키움 김하성, 롯데 마차도 등 7명이다.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구분 없이 3명이 수상하는 외야수 부문에서는 22명이 후보가 됐다.

KIA 나지완·최원준·터커와 함께 권희동·알데아·이명기(이상 NC), 김재환·박건우·정수빈(이상 두산), 로하스·배정대·조호호(이상 KT), 김현수·홍창기(이상 LG), 박준태·이윤규·이정후(이상 키움), 손아섭·전준우(이상 롯데), 구자욱·박해민(이상 삼성), 최지훈(SK)이 외야 한자리를 노린다.

이윤규는 올 시즌 한화에서 기록을 이뤘지만 새 팀으로 이적하면서 키움 소속으로 골든글러브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뜨거운 가을을 보낸 '챔피언' NC와 함께 두산, KT 등 3개 구단이 전 포지션에서 후보를 배출했다. KBO MVP와 신인상 트로피를 모두 가져갔던 KT는 총 14명의 후보를 배출해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한편 2020 KBO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은 오는 11일 오후 3시 4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3층)에서 열리는 시상식을 통해 공개된다.

투표는 올 시즌 KBO 리그를 담당할 취재기자 및 사진기자, 중계방송사 PD, 아나운서, 해설위원 등 미디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누운 자 위에 나는 자 2일 영국 리버풀 안필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 아약스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D조 경기에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아약스의 니콜라스 타글리아피코의 태클을 피해 점프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버풀, 조 1위로 챔스 16강

조별리그 5차전 아약스에 1-0 마드리드 패배... 16강 빨간불

리버풀(잉글랜드)이 아약스(네덜란드)를 꺾고 조 1위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했다.

리버풀은 2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아약스와 2020-2021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D조 5차전 홈 경기에서 커티스 존스의 결승 골을 앞세워 1-0으로 이겼다.

조별리그에서 4승 1패를 거둔 리버풀은 승점 12를 쌓아 조 선두를 유지했고, 2위 아탈란타(이탈리

아·승점 8)와 승점 차를 4로 벌여 남은 한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리버풀과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0-1로 패배를 맞은 아약스는 2승 1무 2패로 조 3위(승점 7)에 자리했다.

통계 전문업체 울타에 따르면 19세 306일의 존스는 트랜트 알렉산더-아널드(19세 10일), 다비드 은고고(19세 252일)에 이어 역대 리버풀 선수 중 세 번째로 어린 나이에 UEFA 챔피언스리그 득점을 기록했다.

리버풀은 후반 38분 호베르투 피르미누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날린 슈팅을 상대 골키퍼가 걷어내는 등 추가 득점에 실패했고, 후반 43분 아약스

클라스 안 환델라의 헤딩을 켈레허가 선방하면서 존스의 결승 골을 지켜냈다.

C조의 포르투(포르투갈)는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맨시티)와 0-0 무승부를 거둬 16강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다.

조 1위(승점 13) 맨시티가 이미 16강행을 확정 한 가운데 2위 포르투도 3승 1무 1패로 승점 10을 쌓았고, 3위 올림피아코스(그리스·승점 3)와 격차를 크게 벌여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B조의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는 사흐타르 도네츠크(우크라이나)에 또 한 번 발목을 잡혀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1차전에서 사흐타르에 2-3 충격 패를 당했던 레알 마드리드는 이날 5차전에서 0-2로 패배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사흐타르와 승점 7(2승 1무 2패)로 같지만, 상대 전적에서 밀려 조 3위에 자리했다. 마지막 6차전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이 좌절될 수 있다. /연합뉴스